

정례브리핑

2020.4.17(금) 10:30, 조혜실 부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통일부 장관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또한 4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국립 4.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0주년 4.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

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혹시 질문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이제 총선도 끝났고 코로나도 좀 안정세인데요.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?

<답변>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며,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

다만, 코로나19 등 관련동향을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고 제반상황을 충분히 감안해나가면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.

<질문> 금강산시설 철거 관련해서 계속 남북 간 실랑이가 있었는데요. 최근에 북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거나 우리가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?

<답변>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없고요. 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.

<질문> 이번 21대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분이 당선됐고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하고요. 또 일각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조롱 같은 것도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저희도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정부가 총선결과에 대해서 평가, 공개적인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21대 국회가 원이 구성되고 나면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이제 총선도 마무리됐는데 향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정부가 견인해나갈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.

<질문> 원래 4월 15일 완공 예정이었던 원산갈마 쪽 상황 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?

<답변> 북한이 지난해 4월 6일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일을, 완공목표일을 2020년 4월 15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. 다만, 현재까지 완공 여부, 연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

<질문> 그리고 이번에 태양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참석을 안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

<답변> 북한매체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궁전 참배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하여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
<질문> 진단키트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 내 NGO들이 북한에 진단키트, 코로나 관련해서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, 보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보고요.

<답변> 정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저희 정부에서도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.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상황이나 북한상황, 국제사회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나갈 계획입니다.

<질문> ***

<답변>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, 강조하신 바 있고 또 북한과도 그런 보건협력을 바란다,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 그 이외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끝>